

한국 학교 9월 신문

1151 W Miller st, Boise, ID 83702 | (208) 803-2296 | idahokoreanschool@gmail.com | www.idahokoreanschool.org

2026 추석맞이 가을운동회가 열렸습니다



2026년 9월 25일은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아이다호 한국학교는 추석을 맞이하여 전교생과 학부형님들과 함께 한가위 음식도 즐기고 가을 운동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한글 학교가 추석을 맞이하여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달리기 경주는 각 팀
8명이 씁니다. 노란 팀과 초록
팀은 치열한 경주를 합니다.
모두들 다 땀이나고 온힘을
다
하였습니다.

저는 빛에 속도로 뛰었지만
초록 팀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패배를
해도 모두들 다 씩씩하게 초록
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달리기 시작!

-대한민국반 이도현





으쌔 으쌔 줄다리기

-대한민국반 이정윤



줄다리기 했어요. 추석 행사로 준비된 음식도 많이먹고 줄다리기도 했습니다. 시작신호가 주어지면 신호에 맞춰 누워 힘들어도 줄을 당겼어요. 2팀이 있고 각각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먼저 당겨서 끈을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당기는 팀이 이깁니다. 부모님들도 줄다리기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장갑이 없어서 손이 아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누가누가 먼저 뒤집나

-대한민국반

최다성-



우리는 Micron park에서 추석 행사를 했다. 땅따먹기를 했다. 4개의 팀중 2개 팀이 서로의 색깔 땅을 뒤집어 대결 합니다. 더 많은 색깔의 땅이 있는 팀이 승리 합니다. 저는 초록 팀에 있었습니다. 노랑 팀과 대결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가장 짜릿 했습니다. 상대방 팀에게 꼬를 부려 제가 이겼기 때문이죠.

달콤한 솜사탕

-대한민국반 이유진-



모든 행사가 끝나고 달콤한 솜사탕을 만들어 졌습니다. 솜사탕 기계에 설탕을 넣어 빙빙 돌아가면서 나온 달콤한 솜사탕 을 먹으면서 행사가 끝났습니다. 운동회를 하며 쌓인 피로가 날아가는 달콤함이었습니다.

10월에 배우는 예절



만나면;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EBS다큐 프라임 - AI와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를 보고

-자원봉사자

이승혁--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처음 느꼈던 감정은 충격이었다. 평소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전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말을 들어도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보니 더 확 와닿았다. 로봇 관련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왔고, 이 성장세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도 조금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 당장 5년 뒤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미 통역가나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나 역시 앞으로 인공지능을 단순히 숙제 보조용이나 질문 해결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인공지능 기반 도구와 기술들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씩 배워나가고 싶다.

동시에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의 가치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개성,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계속 의미있게 여겨질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더라도, 우리만의 표현력과 독창성, 그리고 감정의 전달력까지는 완전하게 전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보다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우리만의 창의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도, 나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다.